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 어떻게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의 오랜 숙원인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박람회장의 선(先) 활성화 및 장기임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지지부진했던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마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DI 연구용역 최종 보고

先 활성화·後 단계별 매각  
빅오·아쿠아리움 주변엔  
콘도·컨벤션센터 건립 적합  
중구 크루즈 관광객 겨냥  
대규모 쇼핑센터 조성 탄력



◇박람회 부지 매각보다는 장기 임대=지난 17일 해양수산부 영상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여수시, 용역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용역 최종 결과에는 그동안 여수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선 활성화 및 일부 시설과 부지의 장기임대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DI의 용역결과 박람회장 모든 시설과 부지를 포함한 정부의 매각방향이 세 차례나 실패한 원인으로 ▲장기적인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입지여건 미흡 ▲높은 매각가격과 토지이용 규제에 인한 낮은 부지 활용도 ▲특화시설까지 매각대상에 포함돼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 등을 민간 투자자 기피 요인으로 분석했다.

매각대상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에는 컨벤션과 청소년 체험시설, 박물관과 크루즈 등 공공시설 활성화와 주요 핵심(엔지니어링) 시설 운영 등 선 활성화 후 단계별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사후활용 계획 변경(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부 시설과 부지의 임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당초 매각대상이었던 크루즈 부두 중 식음 거린인 조성 대상지는 부지 특성과 위치, 지형여건 등을 감안,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각보다는 여수 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시설물이 없는 일부 부지는 불가피하게 매각을 추진하되 수익계약 방식 도입과 매수자 인센티브 부여, 소유권이전 조건 완화 등 매각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KDI는 또 스카이 타워와 국제관, 주재관 등의 건물과 부지는 10년간 장기 임대후 매각하고 당초 매각대상이었던 스카이 타워의 파이프 오르간과 해수 담수화 시설, 국제관내 ‘디지털갤러리’(EDG)와 ‘빅오’(Big-O) 등 특화시설은 매각과 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처럼 박람회재단에서 계속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크루즈 관광도 활성화=KDI는 사후활용 계획상 3개 구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엔터테인먼트리조트 구역 내 리조트형 숙박시설(콘도)과 F&B(식음료)는 적합하지만 해양형 워터파크는 수요검토를 통한 적정규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관과 빅오, 아쿠아리움 주변의 복합콘텐츠 구역내 중저가형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대

규모 공연장, 복합 상업시설 조성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면세점도 크루즈 등 여객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쇼핑센터 조성 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성향이 강한 부유층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크루즈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한해 국내 크루즈 여객 지출규모는 총 1억 1800만달러(1298억원)이고, 8만1급 크루즈선 1척이 입항할 경우 부가가치는 무려 2억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관광 콘손’으로 통하는 중국 관광객의 크루즈선 탑승 1인당 지출 비용은 113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다.

15만1급 대형 크루즈선 접안까지 가능한 여수 엑스포항에 지난해만 5만명이 넘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했다.

김병완 여수시 박람회활용과장은 “용역결과에 그동안 여수시가 주장해온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 정부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수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 공공시설 건립 예산확보와 국내의 기업과 민간투자자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박람회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23만명의 방문객과 48억원의 운영수익을 올린 여수 박람회장은 이번 KDI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의 선투자금 3846억원에 대한 상환시기 연장과 매각 목표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개관 50주년 맞은 여수시립도서관 용천지구 새 도서관 2017년 건립

여수시가 시립도서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표 도서관을 마련한다.

여수시는 23일 “시민의 지식정보 요람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수시립도서관이 지난 19일 개관 5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여수시립도서관은 1965년 2월 5일 관문동 옛 청년회관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지난 50년 동안 59만2천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하루 평균 28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할 만큼 지식·정보 제공과 정서함양 등 시민 서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여수지역을 대표하는 새 시립도서관을 신도심인 용천지구 에듀파크 부지 내 전체면적 5000㎡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2017년까지 건립할 방침이다.

오는 2018년까지 시민 1인당 2.58권의 장서 확보를 목표로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서와 전자책, DVD 등 선진국 수준인 3만5000여권의 장서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도서 배달 서비스, 다문화 자료 2000권 추가 확보 등 다문화 주민들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책 읽기’와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산모, 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안내판과 장애인 유도 블록, 촉지도와 음성안내 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민 행복을 위한 신(新) 도서관 건립은 물론 기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을 연계해 시민들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 시립도서관 발전사의 새 전기를 밝혀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시 취약지구 도시재생 정부 공모사업 1차 심사 통과

여수시가 원도심권 활성화와 취약지구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여수시는 23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공모 중인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에서 1차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70억원을 지원, 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망도로와 상·하수도, 집수리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돕는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동안 원도심 취약지구 달동네 등을 중심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광무동 여수 시민회관 뒤편 4·8통까지 구간을 공모사업 대상지로 정해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다. 이 지역은 저소득층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대대적 개선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안전 사고로부터 취약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 집중호우가 내리면 인근 장군산에서 밀려오는 빗물과 각종 토사 등에 의해 주택붕괴가 잦아 지역 내 대표적 재해·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강동구 도시재생과장은 “다음달 최종 대상지사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남은 기간 현장실사 등 정부 평가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번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오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8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여수구독\_062 220-0550